

강윤지 연구원

## 요약

영국에서는 2021년 2월 연금법이 통과되어 집단형 확정기여(CDC) 형태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해짐. 전통적인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DB)형 제도의 가입 감소와 확정기여(DC)형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CDC 제도는 전체 연금자산을 집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적인 연금관리가 가능함. 반면, CDC 제도의 복잡한 방식 때문에 동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함

- 영국에서는 2021년 2월 「2021 연금법(U.K.'s Pension Schemes Act 2021)」이 통과됨에 따라 퇴직연금제 도에서 집단형 확정기여(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CDC)형태의 운영이 가능해짐
  - 집단형 확정기여(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CDC)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 연금제도와 확정기여(DC)형 연금제도<sup>1)</sup>의 일부 요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도라 할 수 있음(〈표 1〉 참조)
  - 동 법안은 집단형 확정기여(CDC) 퇴직연금제도 도입 승인 절차 및 조건, 가치평가 방법, 감독에 관한 규정, 정보 공개 요건 등으로 구성되어 CDC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음
  - 2021년 8월 협의된 규정 초안에 CDC 제도의 승인 절차 및 기준이 보다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항들이 계속해서 보완될 예정임

〈표 1〉 집단형 확정기여(CDC) 제도와 DB형·DC형 제도의 차이점

퇴직연금제도 유형	적립금 운용 방식	퇴직 시 소득 규모 보장 여부	운용 리스크 부담 주체
확정급여(DB)형	공동	O	고용주(기업)
확정기여(DC)형	개인	X	근로자 본인
집단형 확정기여(CDC)형	공동	X	근로자 집단

자료: Charles E.F. Millard(2021. 4), "Securing a reliable income in retirement"

- 영국의 우편 및 택배 회사 Royal Mail<sup>2)</sup>이 2022년부터 영국 최초로 CDC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초기 가입자 수는 12만 명 정도로 예상됨<sup>3)</sup>

1) 전통적인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 수준이 근로자의 소득 규모와 근무 연수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DB형 제도와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DC형 제도임

2) Royal Mail은 1516년 설립된 국영 기업으로, 2015년에 민영화됨

3) Brodies(2021. 10), "Royal Mail finally sets a da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ry's first collective money purchase scheme"

- 현재 집단형 확정기여(CDC) 제도는 단독 고용주 또는 동일 그룹 계열사와 같이 둘 이상의 상호 관련된(connected)<sup>4)</sup> 고용주들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있음
  - 영국의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는 다수의 비관련(non-connected) 고용주들에 의한 집단형 확정기여(CDC)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22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확정급여(DB)형 제도는 운용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주가 해당 제도 운영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 상대적으로 확정기여(DC)형 제도 가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확정기여(DC)형 제도의 급여액이 운용 성과에 변동하여 운용 리스크를 근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음
- 2010년부터 대부분의 기업이 신규 근로자에게 DC형 제도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DC형 제도 가입자 수가 2010년 100만 명에서 2018년 99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함
  - 그러나 DC형 제도는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하며, 운용 리스크를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DB형 제도에 비해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영국의 고용연금부(DWP)는 DB형 제도 가입 감소와 DC형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집단적 자산운용의 특성을 더한 CDC 제도를 제안함
- 영국의 집단형 확정기여(CDC) 제도는 근로자 개인 단위의 연금계정이 설정되는 기존의 DC형 제도와 달리 전체 연금자산을 집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효율적인 연금관리가 가능함
- 영국 정부 계리부(GAD)에서 CDC 제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명, 자산 수익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델링한 결과, CDC 제도가 DC형 제도에 비해 39% 높은 퇴직급여를 지불한다고 나타남<sup>5)</sup>
    -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교의 연금 정책 연구소가 수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CDC 제도를 통한 퇴직급여 상승률이 40% 이상으로 나타남<sup>6)</sup>
  - 또한 고용주는 DB형 제도와 달리 적립금 부족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CDC 제도의 복잡한 적립금 운용 방식, 운영 시스템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sup>7)</sup>
- CDC 제도는 적립금 운용 방식 면에서 DB형 제도와 유사하지만, 퇴직급여 수준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률이나 평균 수명과 같이 기타 요소의 예기치 못한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근로자 집단이 부담해야 함
  - 또한, 운용 리스크를 근로자 간에 공유하므로 운영 시스템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4) 법안에서는 주된 예로 계열사 그룹을 언급하고 있음(2021 연금법 11조)

5) Charles E.F. Millard(2021), "Securing a reliable income in retirement"

6) Popat, S., Curry, C., Pike, T. and Elles, C.(2015), "Modelling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Schemes"

7) J. Mark Iwry, David C. John, Christopher Pulliam, William G. Gale(2021),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Plans"